



朴準佑 · 高光姬 교수부부

<이화여대 자연과학대 화학과>

<충남대 자연과학대 화학과>

화학연구 한 길... 동송동실실험실 짝의 결합

서울대 화학과 2년 선후배가 학내행사와 실험실습의 짝이 되어 결합한 이화여대 박준우교수와 충남대 고광희교수 부부, 학문적으로 아주 이상적인 보완관계가 가능하고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서로의 동료가 되고 있다는 박·高부부교수는 상호 논문교정, 비판제시 등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요즘은 박교수는 화학올림피아드 위원장으로, 고교수는 인공효소와 분자들의 비대칭인식에 관한 연구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고교수의 부친이 서울로 유학한 딸이 대학생생활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학생을 사귄다는 말을 듣고 고교수를 지방대로 전학시키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노발대발하기도 했으나, 고교수 부친의 분노도 용감하고 진지한 박교수의 노력으로 이해로 바뀔 수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고교수가 대학을 졸업하던 1971년 5월에 결혼을 했다. 유학기간 중 자녀육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두 사람은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78년 이후부터는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호랑이 같았던 고교수의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자녀를 떠맡아 주셨기 때문이다. 두 분이 이제 모두 고인이 되셨지만 두 사람은 두 분께 아직도 감사하고 있다.

화 학분야에는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부부학자들이 많은 편이다. 실험실습 등에서 실험짝으로 부딪치며 친해질 기회가 많아 다른 분야보다 마음이 통하는 경우도 많고 평생 짝이 되는 예도 많다는 분석이다. 이화여대 화학과 박준우(53세)교수와 충남대 화학과 고광희(51세)교수도 그런 화학분

야의 잘 알려진 짝이다.

장인의 노발대발 끝내 설득

박교수와 고교수의 경우도 박교수가 대학 3학년, 고교수가 대학 1학년이던 때 겨울에 학내행사와 실험 등을 통해 친하게 된 것이 평생 짝이 되는 계기가 됐다. 이때 고교수의 집안에서는

대졸 후 결혼...함께 유학떠나

두 사람은 같은 분야에서 일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훌륭한 조력자이자 비

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논문발표를 할 때는 서로 읽어주고 거침없이 비판과 의견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무리된 논문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철저하다. 원래 박사과정에서 박교수는 화학물질의 성질을 주로 연구하는 물리화학을, 그리고 고교수는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것이 주된 연구인 유기화학을 전공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은 학문적으로 아주 이상적인 보완관계가 가능하고 많은 연구에서 서로의 동료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호간의 도움이 없었다면 두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많은 부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한다.

박교수는 지난해 2학기부터 수업경감 연구년 혜택을 받아 많은 시간을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수업경감 연구년이란 이화여대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7년에 한번씩 1년간 주어지는 안식년 대신 원하는 경우 2년동안 강의를 반만 맡는 제도이다. 박교수는 그동안 자연대학장, 교무처장 등 학교 일을 많이 맡아 연구에 소홀히 하였다는 생각 때문에 보다 많은 시간을 연구에 투자할 계획으로 수업경감 연구년을 신청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요즈음은 '성질이 다른 분자들이 독특한 구조로 화합하여 형성된 초분자에서의 전자전달과 분자인식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재단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자들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빛, 전기, 화학적 자극에 감응하도록 설계하고 건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고. 금년부터 한국화학올림픽아드 위원장 일을 맡아 화학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훈련시키고, 매년 개

최되는 국제화학올림픽아드에 출전시키는 일을 맡고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대한화학회 총무부회장의 일까지 맡기로 내정되어 있어, 사업 구상과 준비, 그리고 IMF 시대에도 학회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방안강구에 골몰하고 있기도 하다.

고교수는 요즈음 주로 인공 효소와 분자들의 비대칭 인식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생명계의 반응에 관여하여 반응 속도를 증대시키고 가능한 여러 반응 중 특정한 반응만 선택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효소의 기능을 어떻게 흉내내어 합성 물질로 하여금 유용한 반응을 효소반응과 유사하게 일어나도록 하느냐가 주된 연구주제이다. 그리고 우리의 왼손, 오른손과 같이 서로 겹쳐지지 않은 비대칭성을 갖고 있는 자연계의 많은 물질에 대해서도 연구중이다. 고교수는 교육부와 포항공대의 생리활성분자 우수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인공 효소에 의한 이들 비대칭 반응의 유도 그리고, 비대칭 화합물의 분리와 분석에 관련된 분자인식도 병행하여 연구하고 있다.

큰 딸도 화학 전공...박사과정

그간 특별하게 보람을 느껴 본 적은 없지만 고심하여 작성한 논문이 심사과정에서 '좋은 논문이다'라는 평을 받았을 때, 그리고 출판된 논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인용되는 것을 발견할 때가 가장 기뻐하는 두 사람은 우리의 열악한 연구여건과 질보다는 양을 따지는 학문 풍토에서 가능할지는 극히 의심스럽지만 앞으로 화학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좋은 논문 1~2편을 발표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

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어린 학생들에게 화학을 이해시키고 학문하는 자세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고교수는 박교수가 너무 고집이 세고 극단적일 때가 있기는 하지만 화학을 정말로 좋아하고 연구에 대해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놓으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평한다. 박교수는 현재 스탠퍼드대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큰 딸이 화학을 전공토록 조언했고, 서울대 건축과 2년생인 작은 딸도 고등학교 재학시 국제화학올림픽아드에 출전토록 옆에서 부추기며 화학을 전공하기를 권유했으나 작은 딸이 '집안이 모두 화학만 한다면 재미없다'고 건축 전공을 선택했다고 한다. 박교수는 고교수가 아주 합리적이고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어머니와 주부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아주 고마워한다. 두사람은 평소 여가를 즐길만한 여유도 갖지 못했고 또 특별한 취미도 없지만 일요일 1~2시간 정도 같이 테니스를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박교수는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76년에 미국 템플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눈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등을 거쳐 현재 이화여대 화학과에 재직중이다. 고교수도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박교수와 함께 템플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화학연구소 등을 거쳐 현재 충남대 화학과에 재직중이다. '매사에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옳지 않은 것과 타협하지 말라'와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라'는 것이 두 사람의 살아가는 지표가 되고 있다. 67

송해영(본지 객원기자)